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760호 1판 (음력 4월 15일)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북미회담 이슈 넘어 세확산 박차

정책선거 실천 약속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8일 오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에서 광주시장 후보들과 광주시교육감후보들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31일부터 유세전…지역 맞춤공약 내놓고 한판승부 준비

느긋한 與 집안 단속…초조한 野 지지율 확보에 안간힘

6·13 지방선거 D-15

〈관련기사 3·4·5면〉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31일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과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연일 극적인 반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투표일 다음날은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는 등 대형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각 정당과 후보들은 지지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각 정당은 광주·전남지역 맞춤형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을 선거체제로 개편하는 등 '한 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 속에서 느긋한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당원이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해당 행위를 적발하는 집안 단속에 나서는 등 '승리 굳히기'에 들어갔다. 반면, 야당은 광주·전남에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 득표율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칫 득표율이 기대에 못미치거나 당선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면 향후 지역 정가에서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각 정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거나 출범식을 앞두고 있고, 지역당 사무실을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31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전체 후보자와 운동원 등 1000여명이 모여 선거운동 출정식을 연다. 이날 출정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의 유세차에 플래카드를 설치한 뒤 시민에게 후보자들이 큰절을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이에 앞서 29일엔 민주당 전남도당이 나주에서 지방선거대책위 출범식을 연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기간 동안 남북평화, 5·18 진상규명 등 정부가 진행하는 중요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당의 높은 지지율 탓에 일부 후보진영이 자만할 수 있다고 판단,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혹시 모를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집안 단속에도 나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8일 각 시·군 지역위원회에 '해당 행위자에 대한 경고 및 징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23일 광주시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을 열고 시당의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후보들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권은희 광주시당 상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또 바른미래당 시당 당직자들이 직접 각 후보 진영을 지원하고,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전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도 지난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임명장 수여와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평화당은28일 지방선거 정책공약집을 발간하며 정책 선거를 이끌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낙후된 호남의 SOC 확충을 위해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호남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고공 지지율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야당은 득표율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되는 만큼, 일부 야당에서는 '포기 할 선거와 집중해야 할 선거'를 구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심각하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당선자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향후 정국 운영을 위해서 야당 간 어느 정당이 '의미있는 득표율'을 기록했는지 경쟁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6·13 격전지 국회의원 재선거
– 광주 서구갑·영암 무안 신안 ▶5면
최진석의 노장적 생각
– 철학의 시선과 야성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판문점서 비핵화·체제보장 협의

북·미, 싱가포르서도 실무접촉 진행

미 성김대사·북 최선희 참석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미국과 북한 양국 실무진이 투-트랙으로 실무 접촉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28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30여명 규모의 선발대 실무팀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을 떠나 일본을 거쳐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다. 조셉 해긴 대통령비서실 부실장, 미라 리카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패트릭 클리프턴 대통령 특별보좌관, 바비 피드 백악관 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등 북측 관계자 8명이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 북미 실무 접촉을 위해 싱가포르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북미 실무진들은 29일 오전 싱가포르에서 회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북미 실무진들은 정상회담 개최 장소, 이동 경로, 경호 문제 등 의전 분야를 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북미는 27일부터 성 김 주필리핀 대사(前 주한 미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 측에서 성 김 대사를 비롯해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 북측에서 최 부상 등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문점 접촉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통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판문점에서의 성 김-최선희 의제 조율은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는 물론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담판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간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될 경우 이르면 이번 주에 정상회담 개최 날짜 및 장소 확정 등 내용이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싱가포르·판문점 등 최소 2곳에서 진행되는 북미간 접촉에 더해 뉴욕 채널도 가동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 총리 "장관 평가 결과 靑과 협의"

지방선거 후 부분개각 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현지시간)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改閣)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며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각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거기간에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개각이 이뤄질 경우 6·13 지방선거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이 총리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유럽순방을 동행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 및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지나, 일부 부처 장관 교체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규모가 클 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1년이 지났으니까 교체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 중심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관리하는데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다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며 "사실 1년 동안 개각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인사가 잘됐느니, 못 됐느니 하는 말이 있지만 인사가 잘 됐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취임 2년 차 총리로서 인사권을 더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장관 임명 때도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협의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부분적인 개편 때도 협의를 거칠 것이고,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법무·국방·환경·여가부가 부처 평가에서 꼴찌라 개각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꼭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